



하나님의 은혜가 분열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

God's grace can dissolve polarization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 23 August 2011

로살리 던바 (Rosalie E. Dunbar)

거의 어떤 신문을 훑어보더라도 당신은 분열화의 증거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정치적 적대집단은 다른 집단에 대해 이권을 잃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저 종교 집단은 이 종교집단과 함께 일하지 않고자 합니다. 시초의 모욕이 발생한 이래 벌써 수 세기가 흘렀지만 고대로부터 내려온 분쟁들이 밖으로 뿔어져 나옵니다. 분파 집단 A는 관련이 되고 있는 분파 집단 B를 증오합니다. 이런 식으로 마냥 계속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통합과 공동체에 대한 필요성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호 존중? 형제적인 사랑?

누군가의 자기 자신의 조국에 대한 사랑이, 때로는 그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세계에 대한 자기들의 개인적인 견해보다 더 큰 무엇인가를 포용하는 어떤 선(善)을 달성하기 위해 기꺼이 공동으로 일하고자 하기 위해서는 자기 나라들을 얼마나 사랑하여야만 하는가를 인식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은혜의 한 형태, 즉 자기 자신의 정치적 또는 분파적 신념들보다 더 큰 무엇인 것입니다. 200여 년 전 미국에서 애국자들이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기꺼이 싸우고자 했던 마음이, 인권과 자유를 추구하는 리비아 그리고 그리스와 포르투갈, 그리고 재정적 안정과 존엄성을 위해 분투하는 다른 나라들을 통해 오늘날 온 세상에서 울려 퍼집니다. 이들 각 나라는 진보의 과정에서 한 나라가 당면할 수 있는 어려움들을 초월하는 그 어떤 이상(理想)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아메리카”라는 노래는 미국에 부여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언합니다. 이 노래는 한 나라를 축하하고 있지만, **하나님** 은혜의 메시지는 보편적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하는 필요성이 세상의 각 나라를 위한 기도처럼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주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음과 손을 합치고, 분단을 씻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 - 대립 관계, 시기, 증오를 들어내 버리는 은혜 -가 각 나라의 특별한 장점, 축복에 눈을 뜨도록 하여 여러 국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축복은 자연 자원이라든지 어떤 지역의 ‘곡창’이라든지, 재정 면에서의 기법이라든지, 또는 많은 방문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아름다운 경관들의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축복들의 근원은 신성의 영이신 **하나님** 안에 있으며, **그분**의 은혜를 통해 밝혀집니다.

시기, 적대관계, 분쟁, 욕망, 그리고 탐욕이 나라들을 갈라놓고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가진 특별한 선물들이 - 그것들이 어떤 형태를 취한 것이든 - 도적 맞을 수 있다든지 부패하게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번영을 위해 공유하고 전 세계에 퍼뜨리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개별적이고 집단적인 선물들을 보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고 신뢰하도록 기도함에 따라, 우리는 그런 선물들을 올바르게 쓰는 것을 지원할 수 있게 되고 그것들이 제한적이라든지 적대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는 두려움을 들어내 버릴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의 근원이, 선에 있어서 무한히 충분하고 특성상 제한이 없으며 영원히 안전한 신성의 **사랑**

For this translation in English and other translations in Korean, please see <http://translations.christianscience.com/translations/list/lang/Korean>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안식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듯,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 분께는 변화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1 장 17 절)

이런 선물들은 그것들이 **하나님** 안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상실될 수도 없으며 영원히 온전합니다. 그리고 상실의 가능성이 없는 곳에서는 통합의 정신이 번창할 수 있고 즐거움이 만연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지의 창간자인 메리 베이커 에디는 **하나님**을 유일한 마음으로, 즉 사람들을 분리됨, 질시함,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신성의 이지라고 썼습니다. 이 유일한 **마음**이 적대관계를 극복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지적인 방법들을 밝혀줍니다. 혹 우리가 평화와 진보를 달성하기 위해 용감하게 일해야만 한다 해도, 우리는 **사랑**의 빛 아래서 평화와 진보가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녀는, “인간적 증오심은 어떠한 정당한 권한도, 통치하는 나라도 가지고 있지 않다. **사랑**이 보좌에 계신다.”(454 쪽)라고 썼습니다. 그런 진술의 참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비전과 힘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위한 노력을 기꺼이 하고자 함은 은혜로 축복을 받습니다.

세계의 통합과 평화를 위한 우리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약속이 모든 요구사항들과 나라들을 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 서로 싸우는 개인적 성격들이나 철학들이 아닌 - 보좌에 계시고, 이지적인 **마음**이 - 두려워하는 질투심이 아닌 - 말을 할 때, 개인들과 나라들은 두려움을 넘어 상호간의 사랑과 존경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각 나라가 가진 선물들과 각자가 선(善)이라고 인지하는 것들이 축복을 받고, 배가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충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